

# 허위검침 요금폭탄에 누진요금까지...황당한 광주시 수도 행정

### 6~9개월간 검침않고 기체...상수도본부 '요금 이상' 민원 수개월 묵살 쌍촌·농성동 일대 420여 가구 뒤늦게 누진요금 적용 '폭탄 고지서' 피해규모조차 파악 못하고 거짓해명...가구당 한달 50만원 넘기도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허위수도검침 때문에 420여가구 시민들에게 갑자기 한 달치 수도요금으로 수십여만원씩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도검침원이 6~9개월 동안 수도사용량을 직접 검침을 하지 않고 허위기체 했는데,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가구당 한달 요금으로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진요금까지 적용해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와 쌍촌·농성동 주민 등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과 농성동 일대 수도검침을 담당하는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A씨는 지난해 2~9월 사이 계량 검침을 하지 않고 허위로 수도 사용량을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420여 가구에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가까이 적은 수도 사용량을 입력했다.

일부 시민은 지난해 4월께 상수도본부에 '요금이 적게 나온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묵살 당했다. 시 상수도본부 서부사업소는 민원이 제기된 지 7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420여가

구 시민에게 누진요금까지 부과해 '수도요금 폭탄 고지서'를 보냈다.

서부사업소는 특히 '폭탄 고지서'를 보내면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본적인 보고 체계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부사업소를 관리·감독하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일보의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정모(여·80)씨는 "지난해 2월부터 평소 5만~7만원이던 수도요금이 2만~3만원 선으로 나오더니, 11월 고지서엔 아무런 설명도 없이 31만210원이 부과됐다"고 분노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폭탄 고지서에 누진요금까지 적용했다는 점이다.

정씨의 11월 고지서(9~10월 상·하수도 요금)를 살펴보면, 사용량 215㎥에 총 31만210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누진세(1~3단계) 적용에 따라 최상위인 3단계 요금이 적용된 금액이다. 이 때문에 10% 안팎의 요금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쌍촌동에도 다른 원룸을 운영하는 서모

(여·62)씨도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서씨는 "지난해 4~5월께 평소 나오던 수도요금(7만~8만원)보다 적은 4만원대의 요금이 부과돼 상수도본부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확인해보겠다'던 답변 이후 연락이 없었다"면서 "갑자기 57만원의 요금고지서가 나와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요금폭탄 고지서 민원에 대응하는 상수도본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모(52)씨는 "상수도본부가 갑자기 많이 나온 요금을 문의했더니, '검침원이 아파서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 선생님도 아프면 쉬지 않느냐, 이번 한번만 좀 봐주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등 황당한 말만 늘어 놓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본부 측은 "당시 검침원의 무료가 좋지 않아 언덕이 많은 쌍촌동과 농성동 일대 420여가구에 대해 수개월간 인정을 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정조정'이라는 해명마저도 사실이 아닌 거짓해명으로 드러났다. 인정조정은 검침원이 검침 대상 가구에 방문했을 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검침을 했지만 계량기가 고장이 나는 등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전회 사용량 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감안한 검침이기 때문이다.

해당 검침원이 검침 자체를 하지 않은데다, 허위 검침기간동안 상수도 사용량도

정상(전회 또는 전년도 동기)때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인정조정 등)'를 살펴보더라도, 인정조정은 2회(2개월)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시 상수도본부 측은 시 조례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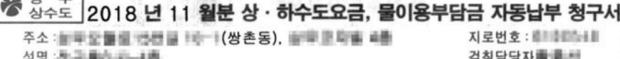
고영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상수도본부가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특별 감사 등 검침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잇따른 시상수도본부의 업무잡음을 놓고 광주시의 분청 중심 인사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소 직원 상수도본부 근무자들이 시 분청에 비해 인사와 교육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피근무처로 인식돼 일부 사래이긴 하지만 업무능력이 나 근무의욕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상수도본부는 시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등 중요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인사 등에서 밀리다 보니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고, 배치되더라도 쉬었다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언젠가 상수도 관련 대형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4-1 (쌍촌동), 광양로14길 48	지로번호: 811005111					
성명: 김동욱(남·41)	검침담당자: 김동욱					
고객번호: 140011007	검침일: 12					
사용기간: 2018.09.12 ~ 2018.10.11	당납기월: 2018.11.20 까지					
전자수용가번호: 2018-1400-14001-1007-7	월금액: 310,210 원					
전자납부번호: 2018-1400-1400-1-10071007-7	현재 총 미납금은 0 원이며, 미납금은 별도(전월, 체납)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구분	상수도	하수도
구경별기본요금	1,000			월총구분	가정용	가정용
사용요금	146,100	127,050	36,061	가구수	1	1
정산금액	0	0	0	검침09월	1,208	0
저소득감면액	0	0	0	검침0월	1,423	0
중소득감면액	0	0	0	검침가구수	0	0
(9)불면액	0	0	0	사용량(m³)	215	215
절사금액	0	0	-1	지하수(m³)	0	0
고지금액	147,100	127,050	36,060			

2018년 11월 26일  
위 금액은 2018년 1월 20일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 사업소**



수개월 치 수도요금이 기재된 청구서(위)와 수도검침원이 '허위검침'한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수도계량기. (독자 제공)

## '동업 갈등'에 동거녀·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와 그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사실희 관계였던 A(사망 당시 53세)씨와 그 아들(사망 당시 32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축사와 건축 주택 비용은 A씨가 부담하고 축사에서 돼지를 직접 사육하고 시설을 변경하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축사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축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A씨와 투자금 반환을 놓고 다투다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안씨는 축사를 비위달라는 A씨 모자와 다투다가 작업을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아들 모자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재판부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배

우자와 그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직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들의 대화 녹음파일이던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해가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는가하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잘못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 자살 암시 여행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해남군 화원면 한 도로 옆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여행사 대표 A(4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행방 파악에 나섰다. A씨는 다수 손님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패키지 여행상품을 팔았으며 자금 문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병원 진료 외출 소년원생 도주 하루 만에 검거

광주 북부경찰청은 "병원 진료차 외출했다가 도주한 광주소년원(고등정보산업학교)생 A(18)양을 붙잡아 신병을 소년원 측에게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병원에 진료차 방문했다가 소년원 직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도주했다가 하루뒤인 19일 오후 4시께 붙잡혔다. 과거 불법 촬영죄를 저지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야 했던 A양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도주해 수배를 받아왔다. 최근 충남지역에서 붙잡혀 지난 16일

경정호 기자 jushh@kwangju.co.kr

## 공사현장 노동자 감전 사망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휴로스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이모(43)씨가 감전을 당해 숨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나주시 빛

가람동주민센터 맞은편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이씨는 전력차단기에서 끌여온 전선을 전기용접기와 연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이씨는 토담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미도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불난 채 달리던 승용차 갯벌 추락 1명 숨져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불이나 50대 1 명이 숨졌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25분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인근 방파제에서 산타페 승용차가 방파제 아래 갯벌로 떨어져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안에서 여수에 사는 A(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으며, 2003년식 산타페 차량은 전소됐다. 사고 목격자는 "A씨가 차량 안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린 뒤 방파제를 향해 달리던 중 차량 안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을 방해했다는 것. ○··이날 이씨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1만3000원 상당의 떡갈비와 자신이 마신 소주 1병 등 음식 값 1만7000원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관계자는 "당시 식당에는 일본어 쓰는 손님은 없었다. 이씨가 술김에 행패를 부린 듯 하다"고 설명.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일본말 했다면 손님에 욕설하고 식당서 행패 부린 취객

○··식당에서 "손님이 일본말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40대 취객이 경찰서행.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모(49)씨는 지난 17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떡갈비 식당에서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

을 방해했다는 것. ○··이날 이씨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1만3000원 상당의 떡갈비와 자신이 마신 소주 1병 등 음식 값 1만7000원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관계자는 "당시 식당에는 일본어 쓰는 손님은 없었다. 이씨가 술김에 행패를 부린 듯 하다"고 설명.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본 부지는 고가의 아파트를 위해 재개발되며, 임대료 다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기 바랍니다.



###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이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우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우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능)
- 임대보증금

문의. 010-6834-7400

---



## 광양보건대학교 제5대 총장 초빙 공고

광양보건대학교를 간호·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시킬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1.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 임용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광양보건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교육철학을 실천할 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사회적으로 지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명망이 높은 자로서 경영능력을 갖춘 자
    - 교육기관 교육경력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총장을 역임한 자
  - 총장후보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광양보건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2. 제출서류**
  - 총장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본 대학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할 것)
  - 총장후보자 추천위원 중 1인의 추천동의서 내지 교내·외 인사의 추천서
    - 광양보건대학교 교수신분으로 지원하는 자 : 학내 교직원 20인 이상 추천
    - 외부인사로 지원하는 자 : 사회유지 10인 이상 추천
  - 이력서(재직 시 주요업적, 교수는 연구업적목록 포함) 각 1부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졸업증명서 사본(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대학경력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3. 제출마감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9.01.21.(월) ~ 2019.01.30.(수)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및 등기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제출할 곳 : (우 : 57764)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85 양남학원 법인사무국, 광양보건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Tel. 061-760-155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보건대학교 홈페이지(http://www.gy.ac.kr)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2019년 01월 21일  
**광양보건대학교 제5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